

尹白湖와 祖·考

三位의 影幀

孟 仁 在

白湖尹鏞公과 그 父·祖三代의 遺像은 지금까지 그 九代孫인 壽慶氏宅에 秘藏되어 오던바 지난三月 奉審할 機緣을 얻었기에 그 聞見의 一端을 草하여 備忘의 資로 삼고자 한다.

이 三位의 影幀은 南原尹氏 後松派의 第十四世 靜齋 喜孫公과 第十五世 沂川 孝全公, 그리고 第十六世인 白湖의 像인데 白湖가 晩年에 賜死된 以來 그 著作文集類와 함께 隱然 傳家되어 오던 것이다.

白湖에 관하여는 學界에 이미 研究^㉑가 있어 그 學問과 經綸의 一斑이 알려져 있고 또 最近에는 白湖全書 三卷^㉒이 그 十代孫인 容鎮氏의 盡力으로 出刊되어 白湖問學에 관한 探索이 活潑해지고 있는 듯하다.

한편 이 白湖全書의 刊行으로 그 가운데 若干의 畫記^㉓가 있음도 確認하였으므로 여기에 添言하려 한다.

한편 여기에서는 白湖의 關聯遺品으로서 賜藥器로 傳하는 白磁장군一口가 傳해지고 있음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위 三幅의 遺影中 十四世 靜齋本은 白衣立像小本이며 沂川, 白湖兩像은 公服坐像大本이다. 三本 共히 本來의 楮貼 그대로이며 大二本은 濕氣의 浸潤으로 因한 汚朽가 不少하나 像容만은 汚濁을 免하였다.

二

南原尹氏 家乘(傳家寫本)에는 第十四世 靜齋公에 관하여 「遺像二本藏于家」라 하여 靜齋影은 이 小本外에 하나의 他本의 있었음을 알겠으며 現本이 小本인 것으로 미루어 大本이 아니었을까 推測되기도 한다.

靜齋本

彩色된 絹本이며 畫面은 長 一一〇cm, 廣 四二·五cm의 陝長縱幅이다. 像의 位置를 아래로 낮추고 上位餘白에 設段하여 篆題와 贊文을 墨書하였다. 篆題는 橫書 一行六字이며 贊文은 縱書 十四行 百十字의 楷體墨書로서 全文은 다음과 같다.

靜齋府君遺像 府君南原尹氏表字 慶遠父自號靜齋祖 三休子
從遊趙靜庵 孝訥野克承庭訓府 君幼孤受學于三休 門人唐文
副守生 嘉靖丁未年三十三終 位宣務郎贊曰 寒靜之徒休訥之
嗣 家文獻行合道義 接物以和教子有方 愛蓮疏池樂山構堂
外雖徇俗中實如玉 早年而逝天何不祿

篆題는 字經約 四cm, 贊文은 字經約 一·六cm이며 像高는 總 三八cm이다. 全體像容은 白衣直領에 方冠을 쓰고 拱手行步하는 態인데 그 움직임이 무엇을 뜻하는 지는 速斷하기 어렵다. 그러나 大體로 士夫로서 의 어떤 行儀를 나타낸 것이라는 것은 틀림 없겠으며 方冠에 白衣常服이지만 一般의 座像의 容態와는 다르고 立像으로서도 그 態가 또 다르다. 한 예로 가령 徐直修 全身像과도 差異가 있어 凡然치 않은 形式上 意趣를 지녔다고 하겠다. 또 白衣는 頸下의 直領으로 보면 겹쳐 입은 것으로 表現되었으며 허리에는 綠條帶를 맺어 느렸고 靴端은 黑色인데 이러한 面은 形式爲主의 整齋된 公服 常服의 諸例에서도 보기 드문 格式의 異彩로운 表現이라 하겠다.

筆法에 있어서도 線은 堅固한 印象을 주지 않으며 特히 顏廓線은 극

히 가늘고 運筆이 緩漫하여 매우 조심스럽게 그려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모든 廓線은 먼저 淡墨線으로 草하고 彩色한 다음 다시 濃墨線으로 起線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 점에서 先·後呼吸이 다른 두 線의 重疊된 흐름이 肉感的으로 느껴지는 바이며 그것이 顏廓에서는 品格을, 衣文에 있어서는 簡滯明快한 格調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傾向의 筆法은 大略 朝鮮後期에 더러 보이는 洗練된 簡明한 線格과도 차이가 있어 藝苑 全般에 걸친 同代 前期의 인 質朴한 性格이 아닌가 생각 되는 것이다.

顔面の 빛은 桃花紅을 띤 紅顔이며 三十三歲로 早逝했던 青年期の 健壯함과 意氣감은 것이 歷歷하다.



尹善孫 影幀

篆題와 贊文은 人稱으로 보아 靜齋의 子인 沂川公孝全의 書로 짐작되는데 取像할 때에 미리 贊文과 像容과의 上·下 排置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畫面 事情으로 미루어 보면 遺像은 沂川의 生存年代에 그려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으나 그것이 實際와는 距離가 있는 單純한 追摸는 아닌 것 같고 그때까지 家傳되었던 한 遺像을 底本으로 하여 새로 移摸한후 沂川 題贊을 썼던 것이 아닌가 推測되는 것이다.

靜齋公孝全은 字喜孫、明宗二年 西紀一五四七年에 生하여 宣祖十二年、西紀一五七九年까지 三十三年間 在世하였으며 早喪父母하였으므로 그 祖父 三休公寬(字栗翁、成家二十一年、西紀一四九〇年) 明宗五年、西紀一五五〇年)의 門人인 柳溪公과 金履素에게서 受學하였다고 한다。



尹 鐫 影 幀

尹 孝 全 影 幀

이 때 漢陽居處는 雙溪洞第였으며 雙溪洞第는 그 祖父 三休公의 構堂以來의 根據地로서 白湖公代에 이르기까지도 領有하였던 곳이다. 東國輿地備考 卷一 基址條에 「尹寬精舍, 在雙溪洞, 尹, 構三休精舍於洞中, 修藏以終老」하였다고 하였으며 同條에 또 「雙溪齋, 在成均館泮水東, 參判金紐舊居, 有姜希孟賦」라 있는 것으로 미루어 成均館泮水東이 同一한 指稱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쨌든 喜孫公은 「雙溪園池 花果林木 含盃習射 惟以教子 閱書爲務 愛陶村 鏡潭山水之勝 欲栖隱 養志 常以不連事々……」^⑥하는 生活를 營爲했다고 한다. 이것은 三休公이 從遊靜庵했던 일로도 짐작이 가는 바 贊文에 「寒靜之徒 休訥之嗣」라 自處했던 家風으로써도 「愛蓮疏池 樂山構堂」하러 했던 所由然을 推測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또한 靜齋自身的 作號에서도 그 意趣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靜齋公은 貞夫人 禮安李氏(縣監琇의 女)와의 사이에 子 孝全(號沂川)을 두었고 庶子 孝光(參奉)을 두었다고 한다.^⑦

沂川本

絹本에 彩色되었으며 畫面の 長 一八〇cm、廣 一〇六cm의 大本이다. 七分左顔의 椅座全身像이며 影幀中에 가장 많은 形式의 公服像이다. 雲文紫袍團領에 紗帽을 썼으며 胸背는 紅地金雷文 바탕에 五色雲과 紫牡丹에 한雙의 孔雀를 繡놓은 것인데 이 繡文은 白湖本과 다르다.

牡丹에 孔雀를 配한 것은 國初에 明制를 效되니 二等遞降 原則에 따라 明制에서 三品인 것을 一品으로 쓰게 하였다^⑧ 하였거나와 沂川의 경우에는 從一品인 知義禁府事가 되었던 光海君 七年(西紀 一六一五年)頃의 取像이 아닐까 한다.

이 孔雀과 牡丹의 用例는 여러 文臣의 遺像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략 壬亂前後를 中心한 朝鮮前期 또는 後期即後에 걸쳐 가장 많았던 것 같으며 肅宗朝를 지나 英祖朝以後가 되면서 雲鶴으로 바뀌어 진 것으로 생각된다. 孔雀, 牡丹 胸背의 數例를 들면 李山海, 李元翼, 洪可臣 申應渠 柳根, 柳頌, 李貴, 李時伯 等 諸遺像이 있는데 이 制度는 英祖朝의 改制時까지 通用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派譜에는 沂川에게도 靜齋와 마찬가지로 遺像二本이 있다고 하였다. 沂川公 孝全은 字 貽永, 明宗十八年, 西紀 一五六三年에 靜齋公의 子로 生하여 光海君 十一年, 西紀 一六一九年까지 五十七年間 在世하였다.

일찍 小學, 孝經, 六經에 通하였고 花潭의 門人인 閑習靜純의 門人이 되었다.

弘文館校理, 吏曹正郎, 同副承旨, 成均館大司成, 司諫院 大司諫, 光海君 五年에는 翼社功臣二等에 採錄되고 司憲府 大司憲을 거쳐 知義禁府事에 이르렀으며 光海君 己未二月初五日 年五十七로 衙舍에서 終命하였다.

貞夫人 慶州金氏(戶曹參判 德民의 女) 사이에 子 鐫(白湖)와 庶子 鏞^⑨을 두었다.

白湖本

絹本彩色, 畫面 長 一八〇·七cm、廣 一〇四cm、크기가 沂川本과 거의 같으며 取像의 方向도 一般的인 七分左面像에 속한다. 紫袍團領에 胸背는 雲鴈이며 紫牡丹과 五色雲을 配한 것은 沂川本과 같지만 葦蘆를 牡丹사이에 配하여 寫景的 趣向을 띠었다. 雲鴈은 當代 官階의 二品에 該當할 것이므로 白湖가 二品인 吏曹判書에 오른 顯宗十五年(西紀 一六七四年)에서 肅宗初에 이르는 一、二年 사이의 取像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보면 沂川의 取像年代와 五〇餘年의 間隙이 생기는데 胸背繡의 牡丹案配式이 아직 行하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이 一七世紀後半의 例에서는 牡丹이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것과 變換의 一定時期를 가졌을 것, 또 或間 併行의 過渡的 現象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케 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이러한 服制에 관한 改制는 堯憲 뒤인 英祖代에 있었다고 하니 또한 그 改制以前의 雲鶴에 관해서도 考慮할 餘地가 있는 듯이 생각되기도 하는 것이다. 또 雙鴈의 빛이 다르게 된 것도 寡聞의 탓으로 適切히 解明키 어려운 바이나 그것은 鴈의 前面과 背面의 관계가 아닌 가 우선 생각된다.

紗帽에 관하여는 다른 많은 例와 照合해보니 沂川本과 아울러 朝鮮中

期的 넓은 빛을 帽後의 下邊과 걸치게 붙이는 恠한 方式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顏廓과 顔面各部는 비교적 太實한 線은 朱黃線으로 그려지고 廓內는 흰빛을 띤 淡朱黃色으로 暈染되어 있다. 口唇部는 淡鮮紅이나 下唇上界를 有光의 더욱 밝은 淡黃色으로 添彩하여 生動感을 더 하였다.

團領의 廓線과 褶文은 淡墨으로 草하고 文彩를 넣어 填彩한 다음 다시 濃墨으로 起筆한바 매우 굵고 質朴한 風이 있다.

白湖(字希仲, 號白湖, 夏軒)는 沂川公이 慶州府尹으로 在任時 光海九年(西紀一六一七)十月十四日 衙舍에서 出生하였으며 二歲未滿에 家親을 여의고 어린時節을 母夫人을 따라 驪州舊第, 三山(報恩)外家, 漢城舊第로 轉轉하며 보였고 이 동안 많은 修學, 讀書를 거듭하여 天資를 啓發, 後日의 많은 問學著述, 經綸展開의 基礎를 닦았다고 한다. 그래서 靑壯年時節에는 公州 柳川과 驪州舊第, 그리고 漢城舊第에서 많은 歲月을 修學의 過程으로 보였고 그가 처음으로 成均館 司業(正四品)의 職을 받은 것은 肅宗元年의 일로 五十九歲의 晩期였다. 六十四歲에 棄世하기까지 不過數年間이었으나 이 짧은 동안 그는 南人의 巨頭로 活躍했으며 官職은 右贊成에 이르렀던 것이다.

出仕하기까지의 오랜 問學生活에 비하면 그의 官界에서의 活躍은 극히 짧은 동안이었고 晩年에는 西人과의 對立爭鬪에서 斯文亂賊으로 몰려 賜死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三

그의 生涯나 學問, 經綸에 관하여는 他書에 昭詳히 밝혀져 있고 門外漢으로서 敷衍하기 어렵거니와 단지 다만 全書에 보이는 畫에 관한若干의 記述을 紹介하는 데서 그칠까 한다. 그것은 二種의 그림에 관한 白湖自身の 所懷를 적은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書家孟所藏鄭古玉画牛簇後

我 穆陵辛卯歲 朝廷既罪治獄大臣 收用播乘 時鄭古玉確有友生崔姓者

處於南海之濱有 命畀以一官 鄭公手寫此圖 寄與崔得之 遂不起云 今觀此圖 牛在郊原有草有樹處 樹之陰 眼有睡思 而頭無羈絆 蓋非宗廟之犧 亦無耒耜曳之役者 鄭公韵土也 其爲此也 寓意固深 崔君能識此意 爲去就 其志亦遠矣 惜其名之不傳也 然崔君能自疎於榮利 亦殆非斬身後名者矣 家孟得此於海濱之人 海濱之人亦言其事如此 此又與陶弘景畫二牛有相似者 古今人趣味 亦固有相契者矣 夫田居無事 掛是圖於壁 感昔人之志 於是乎識牧牛子書

書權生所藏安堅山水圖後

權生聖中示余其家舊所藏山水圖八幅 國朝安堅所寫 堅以墨妙鳴於我東 尤以山水著云 餘不識圖畫 竊嘗聞堅之爲人 蓋不特其畫之可愛也 當光廟靖亂之際 安平大君以公子貴 挾文華翰墨自意 遍交遊一時名流 人莫不歆艷 而趣附之 堅亦以技被招納 堅固絕筆 公子特奇愛之 不使暫離其門屏 堅知時事危疑 欲自疎而不得 一日公子貨得龍媒墨丸於燕市 亟招堅 濡墨爲繪事 適公子起入內 還則失龍煤所在 公子責奴侍婢 婢輩自卜置意在堅 堅起奮袖自明 墨忽墮懷中 公子遽怒叱出之 勿使更近其門 堅默然暫走出退 歸伏自紉 事遂哄傳一世 俄而公子離大憂 其出入門下者 無不連累以死 堅則獨以是免焉 人始異之 嗚呼懷德穢行 自免於勢利之禍刻 此古人之所難 而堅獨能之 是豈不亦知幾見微卓詭 獨行之士哉 如是我聞 抑堅非局於是技者 又別有高識遐想不屑之趣 特以是遊於世 而寓於斯藝者與 是未可知也 餘固不識畫 然觀此幅 其水石之蒼莽 風烟之依微 雖簡逸疎蕩 而顧自有人未易窺者 豈亦象其人而然歟 是爲識 以傳諸好事者 夏村病寓書

위 두 篇의 跋文中 前者는 鄭古玉의 牛圖에 관한 記述인데 鄭古玉確은 字君敬, 號古玉 溫陽人이며 乙巳土禍의 元兇으로 官爵을 削奪 當한 順朋의 子로서 本來 出仕의 뜻이 없었으나 宣祖時에 佐郎으로 仕官한 일이 있는 선비로서 學問에 精進했으며 好酒하여 酒仙의 稱을 얻었다고

한다. 또 詩文에 長하고 草隸書에 能하였으며 東醫寶鑑의 編纂에도 參
與한 일이 있다고 한다.

鄭古玉의 手寫畫와 이것을 받은 崔生, 그리고 白湖自身の 心境을 「萬
意固深」한 이 牛圖에서 하나로 느끼게 하는 記述로서 「古今人 趣味 亦固
有相契者矣」라 하였다. 그리고 「夫田居無事 掛是圖於壁 感昔人之志」라
하여 한폭의 그림에 自身の 품은 心懷를 依托하는 畫筆을 넘어서는 叙
述을 하고 있다.

後者 安堅山水圖에 관한 叙述도 그 寓意的 觀察이나 解釋이 前者와
大同小異한 것으로서 文中에는 始終機用과 隱逸의 思惟가 一貫해서 흘러
있음을 알 수 있고 畫以上の 깊은 意味를 追究하는 白湖의 鑑識·心眼의
非凡한 것과 畫觀의 一端을 一讀으로써 알 수 있게 한다.

위 三位의 遺影中 靜齋本은 小幅이나 그 取像의 形式과 服色으로서
朝鮮時代 肖像畫史上 한 異彩라 하겠다. 後二本은 取像形式에서 一般的
인 것이라 하겠으나 牡丹, 葦蘆를 案配한 胸背로서, 또 白湖父子의 生
涯, 特히 白湖自身の 짧은 官職生活를 생각하게 하는 資料라 하겠다.

註

- ① 韓祐勛·白湖尹 鑄研究—特히 經世論을 中心하여(歷史學報 十五, 十六,
十九, 一九六一—六二)

韓祐勛·白湖尹 鑄의 四端七情人心道心說(李相伯博士回甲紀念論叢, 一九
六四)

宋兢燮·白湖尹 鑄의 理氣哲學 研究 序說(哲學研究 十一, 一九六九)

② 白湖全書全三卷 白湖文集刊行會 尹容鎮 一九七四年七月 慶北大學校出版部

③ 白湖全書卷二十四·「書家孟所藏鄭古玉畫牛簇後」, 「書權生所藏安堅水圖後」

④ 白磁無文小長本(장본), 今口缺, 長十二·七cm 胴徑十·五cm, 口經(內緣)一
·六cm

⑤ 南原尹氏後松公派譜

⑥ 同派譜

⑦ 同派譜

⑧ 金東旭 李朝前期服飾研究 一九六三, 韓國研究院

⑨ 鎡·(王子, 光海君 四年, 西紀一六一二)年生, 忠武公李舜臣庶女所生, 字孟
和, 號桐齋, 蔭學官, 文章著世 取梧里李相公元翼女, 生子有濟, 興濟,
以濟—後松公派譜。

⑩ 白湖全書 全三卷

韓榮國 李泰鎮 白湖全書解題 一九七四年六月

(한국민속박물관)